

을알고악연실척하야셔안을치며왈로군의간사함을내비록근심하얏스나성상의복
 으심으로엇지이디경에밋치시리오하고양던탄식하며분함을이과지못하야식음을
 전폐하고부향호읍함을마지아니하거늘란성이위로왈조고이리로구선봉선현인군
 이만코소인이조권을잡아일장풍파를지음이또흔금일뿐아니여늘상공이엇지더다
 지용려하시는니잇가연왕이탄왈이느랑의알배아니라넛적봉선현인군은반드시국
 부병강하야안으로괴강을세우고밧그로정벌을멀니흔고로비록국용이탕갈하나오
 히려금환란이적거니와랑은금일쇼명을보라괴강이문혀져위권이인군씩잇지안
 코민심이효효하야나라를원망하거늘환란일을위하샤법개천여리를순행하시니
 그민간에소동함이엇더하며도성이빔을승시하야도적을인유치아니리오만일도적
 이니르즉비록던지계시나반복호쇼인의무리나라를도라보지아니하려든하를며던
 지밧게계심이리오금일스괴심분위리하야종샤홍망이흔터럭뚫호니내철세에글
 을비호고십세에부모씩교훈을밧조와십륙세에우리성주를맞나니요순지덕과탕무
 지지로풍운어슈에제우상합하야스스로써하되뜻을일을가하얏더니이제쇼인의져
 희흔배되야던애만리에군신이락락하야환란홍망에서로구힐길이업시되니엇지상
 통치아니리오하더니홀연랑기쇼년이드러오거늘보니이에동초마달이라연왕이경
 왈향일초료덤에맞나다만장군이임의고향으로간가하얏더니금일어디로오는노량
 인왈쇼장등이합하를조차만리밧괴와엇지감이몬져도라가리잇고기간남중산천을

式、舜、湯

구경하고스슴과특기를잡아상공의환초심을기드러더니근일풍편에드름에런져
 태산에봉선하시고선션을구하신다하오니조고로던지봉선하신즉대샤런하하는법
 이라구주소망이초시를연하야혹상공의회환하실괴회잇슬가하야알고져함이로
 소이다연왕이개연탄왈창곡이비록이곳에서죽고도라가지못하나라국의이러흔일
 을기드러지아니하리라우리성상의일월지명으로잠간부운의그리온배되샤국가흥
 망이쇼석에잇스니내엇지죄명이잇슴으로목욕히일언을알외여총곡을다하거지아니
 리오이제맛당히죄를무릅쓰고망녕됨을도라보지못하야일장표를을니고져하노니
 장군은능히런조계신곳을차자표를밧드러주달홀소나량장이응락하니연왕이즉시
 일장표를지어천이봉하야량장을주며지삼부락왈이느국가대셔라장군은십분삼갈
 지이다량장이하직하고즉시상소를품에품고물을채쳐쥬야로부향하야오다가바로
 동희가를조차던조계신곳을답령하니오히려희상에머므샤로참정으로정로대원슈
 를비하야호병을막으라갓다하거늘량장이꽃등을달녀힝궁을보라보고오더니초시
 런지신루를보시다가왈더괴오는재엇더흔사름이뇨그힝석이총망하야심상흔힝인
 의모양이아닌가시부니밧비불너오라하신대던전갑스수인이명을밧조와는는다시
 마져가크게웨여왈더괴오는사름은썰니하하야성명을알외라흔대량장이임의짐
 작하고황망이하마하며왈갑스는엇지던전좌우장군을모르는노갑식일변반기며황
 명을전하야왈장군이어디로오시는니잇가량장이연왕적소로움을대강말하고썰니

답전에 고함을 지촉하니 갑식 눈물을 뿌리며 왈 우리 성던지 잠간 쇼인의 츠언을 드르샤
국개위티하더니 연왕로야의 상셔니 른다하니 이제는 대명이 망치아니 할리로 다하
다도와 몬져 주달하니 띠지또 혼차경차희하샤 밤비인견하실시량장이 회중으로 조차
연왕의 상소를 받들어 띠지 친이 바다보시니 그 소에 왈

운남 죄인 양창곡은 복이신이 불충무상하와 광망하 말슴으로 존엄함을 모르옵고 띠
위를 거스르스오니 그 죄를 의론하면 만스유경이어늘 성은이 홍대하샤 그 다름업슴

을 속히시고 우직함을 용서하샤 성명을 금일 서저보존하오니 신이 그 도보할바를 아
지 못하느이다 신이 일즉듯스오니 군신부조는 오륜의 으뜸이라 상육지은과 성성지

덕이 다름이 업느니 자식된 재비록 부모의 엄칙을 밋조와 목전에 뵈이지 말물명하시
나 부피만일 급훈화를 당하실진대 그 조식이 엇지 명을 거스리고 노함을 무릅써구치

아니 리오 신이 이제 죄상럼 죄함을 조처하야 구구호소회를 다하지아니 하온즉이 는
부모의 엄칙을 노하야 그 급훈을 도라보지아님이라 엇지 하날을 니고 싸을 품아 병

이지심을 가진 자의 할바 리오 신이 성은을 넘스와 일루잔천이 부절하코 세상소문을
오히려 엇어듯스오니 그 중모골이 송연하코 잔담이 서늘하바는 금일 폐하의 동순하

신일이라 지어 선술의 황탄함과 봉선의 무실함은 신이 이제 거를 하야 의론치 못하오
나 분슈추풍에 한무대의 추회하마를 우리 성던지의 일월지명으로 필경치치 못하
시리잇고 다만 목전의 시급하념려와 송구하스고는 주실이 공허함을 승시하야 셔조

의 작란함이 성길가하느니 대범 국가의 부지하는 밤자는 인심과 기강이 잇슴이라 근
년이리로 법구 폐성하와 기강이 문허지고 세강속말하야 인심이 효박하니 폐해 비록

려정도 처하샤 백관을 조속하시며 만민을 무마하시나 오히려 화심을 포장하 재능을
북히하코 귀를 기우려 회를 관망하 지니 하를며 허황하 일을 인연하야 국용을 탕갈

케하코 민원을 니리 허잠든도 적을 서음이 리오 비록 여항쇼민이라 도 집을 지니고 사
는 재 무단이 불긴지사를 인연하야 집을 버리고 방탕오유하야 도라오지아니 할 즉쳐

첩은 원망하코 비복은 허티하야 가중이 수란하코 문호 주인이 업서 왕왕던유지 변을
면치 못하느니 이제 폐해스하지 부와 만승지 존으로 그 일동일정의 중대함이 엇더하

시리잇고 홀연일조에 수키방스의 요단하 말을 밋으샤 천리히 상에 도라오심을 니즈
시니 비록 무심이 보느자라도 성결이 허소하야 빈듯하거늘 하를며 적심을 두고유의

속루몽권지삼 매삼십삼회

四九

雲南

향야봄이리오삼티이리로중원의근근심은남만북덕이라방금도성이남경과달나
北方 북방에갓가오니비록일대장성을격하얏스나遼東廣寧으로검각고되잇슴을신이
 미양념려하느니라가령신의말씀으로과함이잇스죽이는국가다형호일이오만
 일그러치아니홀진대그근심이조석에잇슬가하노니복원페하는요지의팔준마를
 돌니샤宗廟社稷의위티힘이업게하쇼셔근신남북에간담이조격하야安危興亡에
 진월又치안젼스오니신의금일처디죄상렴죄함을도라보지못홀지라불승원박당
秦越 突之至 돌지지하노이다
 던지나필에옥슈로어랍을치시며왈짐이불명하야이又흔신하를방축하니엇지나라
 들보전하리오하시고량장을가히인견하샤문왈너의등이엇지운남만리에연왕을
 조차갓드노량장왕신등의덩종모발이무비페하와연왕의성성취하신바라스싱환
 난에감고를又치하고저함이니이다상이허희단식하시고다시하교왕연왕의충성과
 경륜은던다신명이조림하시니짐이비록왕스를추회하나밋칠배업는지라목금호병
 이지척에니르고로군의성패를알일이업스니너의는각각본직을주노니츠쳐에머드
 리짐을도으라하시고던스를덩하야성야로운남에보내여연왕을부르케하라하시고
 다시량장드려문왈금일홍훈탈이어디잇는노량장왕은탈이가부를싸라가동으로변

山東城

북하고적소에잇는이다상이더욱대경왕이는다짐의허물이로다훈탈이황성에잇는
 가하얏더니이제또훈만리밖게잇다하니도성이더욱허소하리로다하시고철폐로연
 왕에게조셔하시니그조셔에왈

卿上疏

朕

昭昭

白日

卿

忠誠

往事

경의상소를보니짐의얼골이듯겅도다

追悔

胡兵犯京

蒼茫

海上

朕

救

를추회하나엇지밋치리오습하다

先見之明

紅渾脫

朕

救

니경의선견지명이거울又음을세드를지라경은홍훈탈과밭비와짐을구하라

던지쓰기를다하신후우림갑스증말잘달니는자를쌌아조셔를가지고성야로형함을
 저촉하시니갑식하직하고단괴로밤을도아남으로가니라차셜로군이대병을거느려
 산동성을향하야형군홀식홀연일진광풍이니러황신기를불어씩거지니로군이심중
 에깃거아니하야대청진인을보며길흉을무른대진인이침음왕황신기는중앙방과치
 라중앙방은무음이니참정이무삼요호심식잇슴이로다로군왕과대씩거짐은무슴
 징죄노진인이쇼왈씩거진즉들이될지니참정이혹두가지무음을먹음이아니나로군
 이초언을듯고면여도석하야다시못지못하더라로군이산동성에니르러성하에진치
 니츠시야를선위임의성중에드러대병이너름을알고친히와호병을지휘하야대전십
 여합에로군의군식엇지당하리오대청진인이그급함을보고진상에올나진언을념
 향며자법하니홀연검은비와모진바람이돌과모래를늘리며신장귀졸이호진을향하

야스면으로에위싸매션위대경야군스를거두어성에들고급히척발날을부르니척
 발날이수기호장으로황성을지회라하고즉시정병오천기를뽑아산동성에니르러패
 혼곡절을즈세듯고경왕이논반드시명진중도솔잇는재잇서병세를도음이나항복받
 게하리라션위그계교를무른대척발날왕소장이황성을겁탈한후공경대신의가권을
 싹금하야군중에두엇더니이제로참정의처지를리해로달닐즉로군은본디반복쇼
 인이라반드시항복하리이다션위그말을을히녀즉시황성의싹금흔공경대신의가
 솔을옴겨오라하니라차셜진왕화진이본국에잇서오래입쥬치못하더니호병이법결
 함을듯고불스분을하야공주를보고탄왕간신로군이나라를그릇처럼지천리밖계
 시고북션위도성을겁박하야태후량년의가신곳을모른다하니금일신즈된재엇지안
 저보리오이제본국군스를거느려량년을보호코져하노라진국공쥬추언을듯고말을
 굴으며을어왈모회회경에이긋흔욕을당하하니유유창련아이어인일이니잇고첩이
 비록은녀지나모르지정은남네업나니맛당히대왕을조차성스길흉을긋치할가하느
 이다진왕이위로왕공주는관심하쇼셔화진이맛당히진력하야타일도라와공주를디
 할낫이잇게하리이다하고즉시털기철천명을도발하야성야로오더니중간에일디호
 병이무수흔거장을물고가늘진왕이그중국녀즈를사로잡아감을알고털기로막고
 구코져하더니멀니브라봄애그중수기녀지분면홍장으로수리문을열고호장과의학
 이란만하거늘진왕이히연탄왕이논개와듯긋흔무리로다내엇지더를구하리오하고

다만수척거장을탈취하야다리고도라옴애호병이늬은녀즈를모라살긋치가더라진
 왕이진중에니르러그거중녀즈의거주를무른대그중량기녀지복식이슈상하야려항
 부녀와다른지라누구임을힐문흔대그녀지왕첩은태후궁시녀가씨오더차환은첩의
 수하천비니이다하니이논원리션량노쥬라중시중적을로출코져아남이라진왕이논
 나래후량년의가신곳을못고아싸호진중담소히학하던자는엇더흔녀지노쇼청왕이
 논로참정의가권이라하디이다진왕이분하야하디라진왕이션량을디하야왕내군스
 를거느려성야로형하니랑이쓰르지못할지라아즉진국에가공주를되시키고있다가평
 란흔후도라오라션량이역시궁도에갈곳이업서그말을조차진국으로감시진왕이털
 괴수명을주어호송하고진왕은황성으로가니라차셜호병이싹금흔녀즈를모라산동
 에니르러진병을맞나랑패흔연유를고하니션위오허려로군의가솔이잇슴을다형하
 야즉시성상에세우고크게외여왕로도독은썰니항복하라도독의가권이여괴잇스니
 항복흔즉살거시오아니흔즉죽이리라로군이성상을우러러보니과연즈괴의처첩과
 가인이완연이나서부르지저을거늘로군이참아보지못하야괴운이저상하야정을쳐
 퇴군하고진중에도라와그만히싱각하되넣적의오기는살쳐구장하얏스니내이제쳐
 즈를고런치말고션우를쳐대공을일운즉죽히연왕의권세를아슬거시오영녕부귀극
 할지니런하의무수흔미인이무비가솔이될지라내엇지공명을브러가속을구하리오
 하더니흔연다시탄왕내비록대공을세우나황상의긋으심으로왕스를흔번츨회하신

흔죽추회함이성기고저져관망흔죽새를노치느니시호시호부지리다 時乎時乎不再來

로군이람필에머리를숙이고반향을침음하더니다시글월을펴보고정신업시촉불을
비라보며서안을의지하야눈을감고자느듯하다가홀연손으로서안을치며결연이니
러안져단왕내아사몽죄불길하니죽어욕됨이엇지살아영화흠만하리오하고붓을싸
혀호장의답장을쓰랴하더니다시성각왕내이제항복코저하나태청진인이즐거아니
할지니엇지면도호리오또반향을침음하다가홀연무릅을치며소왕세잔만시엇지로
군의경륜에버서나리오하고즉시진인을보고왕선성은근일량자흔동요를드르시니
잇가진인왕동외무엇이뇨로군왕

鸞飛高靑雲消

天將曉天將曉

제비는높히늘고푸른구름이살아지니

하늘이장춧새리로다하늘이장춧새리로다

진인이듯고소왕이무슴뜻이뇨로군이단왕연비고른말은연왕을닐은말이오청운소
른말은선성을닐은말이오던장호던장호는말은하늘이북단말이니명나라이다시중
흥하리란말이라하더이다진인이소왕빈되본디부운종적으로홀왕홀리하니엇지국
가흥망에참섭하야남의입에오르느리리오로군이단왕이느다만만성의죄라선성을
무단이청하야도술이고명함을보고청당이불을하야이동요를지어내니그뜻이연왕
이만일드러온즉선성이스스로뜻기이고명나라이흥하리라함이라만일그런즉선성

은록슈청산에결닐거시업거니와숨흐다로군의신세는어느곳에죽을줄알니오진인
이링쇼왕청운의거리는청운에게달렸스니엇지연왕에게뜻기여가리오로군이다시
살어지용사왕만성이실로선성을괴망치아나리니연왕은진기범인이아니라상흥던
문하고하달디리하며룩도삼락과호풍환우하는지죄잇스니만일선성과저울대를다
를진대그무거움이어디잇슴을모를가하하이다진인이추언을듯고양연하야눈섭을
쓸며왕내십년산중에슈도성공하니장춧하를쥬류하야흔번놓흔죄조를맞나우렐
을질덩코저하얏더니연왕의지국이이긋흔진대빈되흔번죄조를결워보리라로군이
이에슈중으로척발날의편지를내여진인을뢰이며왕만성이성어중국하야장어중국
하니엇지부모지국을비리고흥노에게굴슬하리오마는조고로중국귀피박익하야당
론과시비를쥬장하고인지를용납지아니하니만성의금일쳐다진되무척이라넷성인
이말슴하사되충신을말하고독경을헹홀진대만익지방이라도가히살니라하사내대
장취맛당히런디로집을삼고스히로형데하야도혹을빚내고죄조를나내리니엇지
구구이일련을지희여타인의절제함을밧고죽어못철짜이업스리오금일만성의뜻이
임의덩하얏스니비라건대선성은만성을조차다시북으로노라그비흔바를다하고흔
번연왕의예기를씩그신즉선성의도술이런하에독보홀뿐아니오또흔만성의분함을
씨슬가하느이다청운은본대지승덕박흔재라쾌하흔대로군이듯고대열하야죽서척
발날에게답서를보내여투항할뜻을고하니척발날이대희하야선우와의론왕로군의

벼슬이 높고 지견이 천단하니 귀례로 되 접하고 위선 좌현왕을 봉하고 그 모음을 위로하고
 쇼셔 선위 허락하고 척발날의 편지를 보내며 그 만히 상약 후의 일삼경에 군이 군사를
 를 성외에 머무르고 심복지장호사름과 래청진인을 다리고 그 만히 성하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척발날이 임의 문을 열고 서로 마주 오히려 좌우에 호병을 미복하고 불우지
 변을 방비하였더니 그 초초이 음을 보고 우으며 손을 잡아 왈복이 참정의 고명을 산두로
 치우러 려더니 금일 지사를 봄에 지기 지혜와 경륜이 과인하심을 알니로 다로 군이 무연
 답왈로 군이 명절에 득죄호사름이라 장군의 말씀이 이에 맞치시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
 하리 오척발날이 일변위로 하며 일변손을 잇쓸어 선우 씨 빌시 선위 쇼왈 참정은 귀인이
 라 과인이 엇지 항장 지례로 보리오 맛당히 빈주로 마져 타일득의 홀죽 짜홀버허부귀를
 및 처하리 라로 군이 스양왈로 군은 궁박호종적이라고 고국에 몸을 용납지 못하고 회하에
 투항하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하리 오선위위로 하고 즉시 좌현왕을 봉하고 가솔을 불너
 상면호후로 군의 처는 좌현왕연지를 봉하고 주매로 군이 심중에 대열하야 이에 래청진
 인을 크게 처왈이 선성은 청운도 식라 운유종적이라고 군을 조차대왕의 군중을 구경코져
 오셨니 이 다 선위대경왈이 엇지 런하를 류류하야 도술이 고명하신 청운도 식아니시나
 로 군왈연하니 이 다 선위공경례필에 왈선성이 일즉복방에 노르샤성명이 우되호하시
 니 과인이 홀번비알하기를 원하였더니 금일이 및 처가림하시니 이는 과인의 복이로 소
 이 다 청운이 쇼왈빈도는 덩쳐업시든 이는 사름이라 청련의 부운이 바람을 쐄라 무심이

가고 무심이 오니 동서남북에 걸날 배업스나 금일대왕의 용병하심을 잠간 구경코져하
 와니름이니 이 다 선위와 척발날이 본디 청운의 일홈을 니히드러더니 깃름을 이기지 못
 하야 심분공경하며 스부로 되접하니 청운이 또 호양양즈득하더라 초시홍노좌현왕로
 군이 선우 씨 고왈 명병이 오히려 성외에잇스니 만일 스스로 호히지게 홀죽이 는 덕국을
 즈되홈이라 제장을 보내야 일디 정병을 거느려 호북에 못찌른죽이는 이에 무장지졸이
 라 반드시 장평궁졸됨을 면치 못하리니 그 뒤를 니어 털기를 모라 런즈HING을 엄습호죽
 대공을 일을 가하니 이 다 척발날이 간왈우리 바야호로 종국을 경영하며 몬져 궤술로 무
 죄호박성을 이 및 처 못찌른죽이 지복에 해롭지 아니리오로 군이 쇼왈 장군의 말씀은 삼
 티용병하노되라 고금이다 르니 병불염새라 명련지홀로 궁에잇고 대군이 모다나를
 조차왓스니 기회를 노치지 못할가하니 이 다 선위로 군의 말을 히녀여 즉시 정병을 도
 말하야 성문을 통기하고 일시에 내다라 침애초시 명진제장이 도독을 일코즈연요란하
 야 엇지 할바를 모르더니 홀연호병이 털기를 모라 출기 불의하니 명병이 대란하야 각각
 과치창검을 버리고 목숨을 도망하야 서로 흠아 죽는 재되오더라 선위인하야 대병을 모
 라 동향하야 궁을 겁박하라하니 이는 다로 군의 쎄라 숨호다하늘이 사름을 내심애오
 장륙부논다름이 업스니로 군이 불과 담권락제하야 연왕을 식기하다가 마침내 역심이
 밍동하야 엇지 제섬기던 군부들이 및 처져 버리는 노반드시 쇼인의 간장은 다름이잇슴
 이라 만일 인군이 그 간장을 보고저하실진대 맛당히 평일언행을 숨힐지니 무릇언행은

간장에서 낫타는 배라로 군이던 즈를 피서 구선봉선함을 권할 지음에 그 말슴이 들아 금
 일변하야 쓴 것 될 장본이 잇거늘던 지세 뜻지 못하니 엇지 후세 인주의 징계 할 배아니 리
 오차설이 때던 지로 군의 환릉함을 인연하야 진덕 혼황성 쇼식을 뜻지 못하섯더니 리
 이 출전 혼후바야 흐로 황성스신이 니 르러 황성이 함몰하고 량년이 파천하야 진남성에
 폐신 쇼식을 일일 주달하니던 지 발을 굴으시며 북향 동곡알수빅년 종재내 손에 망홀 줄
 엇지 알았스리 오하시며 다시 스신을 보샤 진남성 안위를 쯔세 무르시고 단알 윤각로의
 충심은 짐이 임의 아는 바나 양태야와 일지련은 밖의 로 괴병하야 래 후량년을 이긋치 보
 호하니 이는 짐의 은인이 라 연왕부 쯔의 향국 지성을 장춧 무엇으로 갑호리 오하시더니
 홀연 패훈군 처산 동성으로 조차도 망하야 도라와로 군의 반홀 쇼식을 고홀 대던 지련 안
 이저 상하샤 량구 무언하시며 동홍을 차지시니 홍이 임의 간곳이 업고 좌우에 되섯던 천
 척봉당이 모다 도망하야 시위에 일인도 업거늘던 지 양련 완잠이 불명하야 좌우지신
 이이곳치이심을 포장함을 몰나스니 나라이 엇지 망치아니하리 오하시고 동마량장을
 보시며 함루하시니 량장이 또 혼감개 불을 흠을 이기지 못하야 귀밧히 창대긋 혼터럭이
 니러서며 답전에 설어 왈 신등이 비록 불충 무용하오나 견마지력을 다 할지니 폐하는 속
 히 동히도 병을 도발하쇼셔상이 조치샤 밋쳐군스를 부르지 못하야 북으로 조차함성이
 대작하며는 논티글이히 변을 덤허호병이 바람긋치 모라오니던 지 엇지 피하신고 하회
 를보라

데삼십삼회

명련지 몸을 버셔서 쥬에 드러가고
 동장군이 의를 퍼선우와 싸호다

明天子脫身入徐州
 董將軍伸義鬪單于

각설초시던 지 호병이 니름을 보시고 양련 단식하샤 완잠이 비록 주목왕의 팔준매잇스
 나하늘이이제고국에 도라가기를 빌니 지아니하시니 엇지하리 오하신대 동최마달을
 보며 왈일이 급하니 장군은련 즈를 피서형하라내 맛당히이곳에잇서호병을당하리라
 하고시위훈군스를헤여보니오히려이천여기라일천기는스스로서려선우를덕덕
 하고일천기는마달을주어련 즈를보호호후동최천이물을끌어련 즈씩오르심을
 청하야왈스세위급하와의장을긋초지못하오니복원폐하는마달을다리샤남으로형
 하쇼셔창련이도으시고선데신령이우에림하시니수빅년종새친치아니하리니옥
 레를보중하쇼셔신등이불충하와폐하로이욕을감슈하시니호병을덕홀낫이업스오
 나맛당히진력하야선우로이곳을지나가지못하게하리이다다시마달을향하야왈우
 리량인이련은을망구히넘어정히오날도보홀때라장군은삼가할지어다만일호병이
 이곳을지나거든동최죽은졸알라던지홀일업서물씩오르샤마달과일천기를거느려
 남으로가시니동최눈물을씩려하직하고형궁에드러와휘하일천기를불너약속왈너
 의련은을넘어국록을먹은신제라금일이긋흔불의지변을당하야엇지충분이업스리

오내니의로더브리망극헌던은을힘으로써갑다가힘이진할진대맛당히헌번죽어
 옴으로갑홀지니너의만일힘과모음을앗겨죽기를겁하는재잇거든셀니물너나라내
 맛당히헌자호병을당하리라할대군셔모다눈물을써려왈쇼디등이비록우미하오나
 오히려심장이잇스니엇지장군의충의를감동치아니하리잇고비록슈해라도피치아
 니하리이다그중우림갑스일인이칭병고되하니이논이에로군의가동으로던은을남
 어특별이우림장군으로부리시든재라동최즉시발검참두하야군중을호령하니라츠
 시선우의대군이헝궁수빅보박게니르러오히려허실을몰나진을치고바로갑박지못
 하거늘동최이에던츠의과치외의장을헝궁압히의구이세우고일천기로써좌우에서
 위하야북을올니며군령을전하니위의엄숙하고그상이한가하야조곰도요동치아니
 하니선위의심하야와과인은드르니중국사름이계술이만타하더니이반드시정병
 을미복하고우리를인유함이로다하고반일을관망하며종시충돌치못하니원리츠사
 로군과척발날은산동성에두고중국허실을아나니업는연과라이욕고일락서산함애
 동최헝궁에군과외화구를내야참검과과치를전후좌우에무수이잇고과긔히축룡을
 달아일일이불을부러히니밤빛이몽롱하고불빛이조요헌중과치참검이뜸뜸이버렸스
 니브라보는재아목이현항하야그수를측량치못할너라동최이에일천기를싸혀내여
 열세에난화미명이각각단병과축룡을가지고헝궁을돌너십면으로미복헌후만히
 약속하되만일헝궁뒤덕언우에웨이는소리잇거든일시에내다라방포납함하라하니

원리헝궁북편에적은동산이있다라츠시동최군스를지휘헌후다만헝과치를궁전에
 세우고물쇠을나창을들고만히언덕에올나호병의동정을보더니야심후선위호장
 과상의알명던지엇지이곳치담대하노고과치외의장이제제창하야종시허실을알길
 이업스나내십만덜기를거느리고무슴겁홀배잇스리오하고바야호로남함하며헝궁
 에달너들매헌군스도업고다만적막헌궁전에헝과치를긔졌스며등축이명멸하야새
 지고저하는지라선위대경하야계술에싸진줄알고급히군스를물너더니홀연북편언
 덕위에크게웨여알야를선우는셀니항복하라하며스면에함성과포향이런디진동하
 고산악이흔늘너동서남북이일시상응하야그수를알길이업거늘호병이대관하야항
 오를츠리지못하고다라나니동최미복헌군스를모라조차수리를물너침애선위천식
 이미덩하야좌우를보며왈명던츠논어디갓스며우리조차오는장슈논엇더헌사름이
 노이제그함성과포향을드르니던츠휘하군셔오히려만커늘참정이말하되던지혼자
 헝궁에있다흙은엇지홀곡절이노하고호상일인을보내여산동성의좌현왕로군늘청
 하야중국동정을지세못고져하니라츠시동최선우를물너친후즉시일천기를거두어
 도라오며쇼왈내군셔적고호병이만흐니멀니조침은병법이아니라하고헝궁에너르
 러곳쳐약속왈호병이종시중국을겁하고허실이싱소하야헌번속앗스나다시겁박헌
 즉방략이업스니만일선우의대군이이곳을지나간즉던츠의안위를십분측량치못하
 리니이논내손으로덕병을보내야군부를곤하시켜홀이라내이제죽기로써막을지니

너의능이소성을못치흐쇼나제군이일시에고두응락하니동최즉시부편언덕과동서
 량방의슈목스이다다헛과치를무수이쑤고군스빅명식미복하니무를쓸어티살을
 니리혀의병을만들고칠빅과로힝궁압히방진을치고기드리라호후동최채을들고필
 마단기로선우진전에나가도전하니호장이나와수합을싸호다가동최거죽패하니
 다라나거늘호장이쑤고저하니선위정을쳐거두어말이반드시우리를인유코저흐
 이로다호고쥬시멀니쑤르지아니호거늘동최또호싸호에쑤는지라다만창을춤
 추며물을달녀후쑤짓고육호며후싸호가다라나니선위더욱의심하니쑤지아니호
 더라익일좌현왕로군이산동성으로조차오니선위기간승패를일일이니르고방략을
 무르니로군이쇼왕이노대왕이속으심이라반드시대군이니름을알고명던지힝궁을
 떠나피화호고일기장슈를머머러게술로대왕을속임이니대왕은이제대군을모라엄
 습호쇼서만일랑패함이잇슬진대군령을두리이다선위반신반의하니야에군스를
 함미호고다시힝궁을엄습할시선위홀연군스를멈추고로군을도라보아부편언덕과
 좌우를그르쳐왈좌현왕은더기를보라엇지명병의미복호배아니리오로군이쇼왕이
 는의병이라기치요동치아니호고무단이티살이니러나니는게술이라쑤니치쇼서
 선위그말을을히녀여대군을모라힝궁을에워싸니동최이에스기금함을보고군스를
 모하방진을천후호병의동정을기드러더니호병이스면으로처참검이비발치듯거
 늘동최창을들고물기오르며군스를보아말너의는죽기를겁호지말라스성은던명이

라맛당히나라를위호야의잇는귀신이되리라호고동을춤들호야일기호장을버히고
 서를막아수기호장을무찌르니창뚫히찬바람이돌고물굽에벽력이느린듯소향무
 덕하니선위대경왕이노명나라막강호군서오무쌍호명장이로다호고로군을보며문
 왈더장슈는엇더호장슈노로군이브라보고경왕동마량장이일죽연왕을쑤라운남적
 소에갓더니어는씨에도라오노만일연왕이갓치왔스죽엇지근심되지아니리오호며
 선우씨고왕이노던전장군동최라불과필부지용이니무습겁홀바이잇스리오선위초
 언을듯고군스를호령호야더욱급히침애일천기군서임의절반이나죽고동최또호호
 르는살을마져창법이잠잔호란호거늘로군이선우와진상에서브라보다가로군이크
 게웨여왈동장군은별리무양호노국운이불힝하니인력으로호바아니라조고로망
 치안논나라이업거늘장군이홀노더호치슈고하니무의지아니리오이제호반항복호
 즉부귀공명이좌장군에긋치아니라동최이말을듯고치여다보나이에로군이라
 흥중의무명업해만장이나니러나칼을들어그르치며크게쑤지저왕이반적으로아네
 빅슈지년에벼슬이참지정스에니르니무엇이부족호야부모지국을빈반호고흥노에
 게굴슬호노를이제개게비홀진대개는오히려쥬인을아느니던디신명이너를굽어
 보시거늘참아적병을도아엇그제섬기던군부를겁박호는다너호호무리와하늘을호
 치날뜻이업스니출하리나라를위호야금일쾌히죽어더러운말과반복호정리를디호
 지아니호리라호대로군이면괴호야고기를돌니며호병을호령호야더욱급히치니동

최분과충현하야니를갈며창을들어새로괴운이나는지라좌충우돌하야호장삼인파
호병오십명을죽이니선위대경왕이장쉬용명이절인홀뿐아니라위국하야소성을도
라보지아니하니만일급히치고저홀진대반드시상홀재만홀가하노니군스를멈추고
다만든이에위싸라하대동최역시늬은군소오백여명을홀곳에모하방진을치고잡
간쉬나라의일선위호장과상의왕명장의괴식이죽기를판단하니그저잡지못홀지라
제장이합력하야히심에에위싸고일시에쳐무찌르라하니호장이터령하고크게워여
왕명장은드르라네잔명이오날뿐이니살고저홀죽물게느려항복하고죽고저홀죽목
을느리혀갈을밧으라하며십여명호장이스면으로일제이다라드니동최이에오백과
를보아알내너의로더더브러죽어도충혼이되리니너의논이심을두지말라언필에창을
들고물게을나흔소리를지르고호장십인을타닥하니호진의북소리번치지아니하교
창검이셔리긋치드러와동최두어곳창을마즌지라피홀너마전에떠러지나오히려수
기호장을썰너괴운이씩기지아니하더니홀연호진서남각이요란하며일원명장이월
도를출추어살긋치충돌하며썩지저왕호병은현조명장을곧게말라하니엇더하사름
인고하회를보라

데삼십오회

연왕이겨서를전하야남방군스를모호교

燕王馳檄聚南兵

선위군스를물너진인을격동하다

單于退軍激真人

각설치시런저마달과일천괴를거느리고남향하야가실시마달을보시며할루왕동최
반드시죽으리로다혼자일천괴를거느리고엇지홍노의억만대병을막으리오하시며
자로말곳비를잡으시고북향하야추연련련홀싱각이런안에나타나시더니멀니브라
봄애진애창현하며일디군매니르느니라런지놀나샤왕이엇더하군제노마달왕그북
석을보니호장이아니라구원병인가하느이다언미필에그장쉬하마하야로변에부복
청죄하거늘상이물을잡으시고문왕장군은엇더하사름이뇨그장쉬왕신은남히죄인
소유경이로소이다시운이불행하와국개위티홀을듯좁고엄명을무릅셔남히도병을
니리혀폐하를호위코져너름이니신이비록련은을남스와죄명을샤하시나스스로군
스를니리힌거시당돌하오니복원폐하는몬져신의죄를다스리샤괴강을세우쇼셔상
이죄우를명하샤붓들어니리혀마전에손을잡으시고단왕짐이금일이일을당홀은경
의직언을듣지아니하련과라경이이제복지못하인군을버리지아니하교의괴를내여
이긋치구하니경의충성은하늘이조림하시려니와짐이엇지붓그림지아니리오하시
고즉시마전에하교하샤소유경으로백부상셔겸의성분의정노대장군을비하하시니소
유경이더욱황공돈슈하야청죄홀을마지아니하나런지엇지드르시리오부득이샤은
슈명홀후상이문왕남히병이얼마나오뇨유경왕창졸에도발하야불과오천괴나이다
상이단왕환란을당하야나를구하느재잇거늘내또하더를구하지아니하면의아니라

亂 平定 伏願陛下 罪 赦 軍中事
란을 평정하시리라 함오니 복원 폐하는 그 죄를 사하시고 밋비 부르샤 군중사를 맛기
쇼셔

던지 보시고 대희하시 제신을 보시며 왈 진왕은 문무겸전 재오래 후의 총이하시니 교
제라 이제 좌우에 되섯스니 죽히고 위왕신심사를 위로하시리로다 하고 삼천명 털기를
특별이 시위하시라 하시니 라차설 선위동마량장이 에워싼 거슬헛치일시 에도 주함을 보
고 대노왈 십만대군이 일기편장을 씩금치 못하니 엇지 중원을 도모하시리오 하고 대군을
바로 쫓고 저할대 좌현왕로군이 관왕근일을 경영하는 자는 적은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니 이제 산동성에 가 쳐발날과 래청진인을 청하시며 명진자를 엄습하시라 선위왕 산동성
은 중디라 엇지 지치지 아니리오로군이 쇼왕황성이 이에 함몰하고 산동이 북에 일기장
슈업스니 호장수인 과군수 천기를 주어 산동성을 직회죽근심할배업스오리이다 선
위를 히녀여 호장삼인을 보내여 산동성을 직희라하고 진인파 쳐발날을 청하시니 쳐발날
이 즉시 진인을 다리고 나른대 선위장차 명병을 엄습할 계교를 말하고 회군하시니 남으로
오니라 차설치시던지 동마량장을 다리고 서주성을 도라다니시며 형디를 지세보니
성협이 늦고 성문이 허소하시니 슈성할 곳이 아니라 동편에 놓흔 퇴잇고 피우히적은성이
잇서 그 형용이 제비깃드림과 혼고로 일흔을 연소성이라 하시니 비록디세와 성협이 든든
하니 군량이 업고 주희형축하시대 군을 용납할 곳이 업거늘 군신이 상대하시정히 근심

燕巢城

하시더니 홀연야심 후일진 북풍이 습습하며 풍편에 합성이 대작하시니 소상세대경하시동
마량장과 성에 올라보니 야석이 창망한 중무수호병이 들을 덤허그다 파를 알길
이 업거늘 바야흐로 선위의대군이 나름을 짐작하고 즉시 성문을 닫쳐요해쳐를 직희더
니 호병이 바로 납함하며 성을 에워싸고 급히 치니 소상세천이 성상에 올라 군사를 동독
하시야 아모리 방비하시나 호병이 물미듯하며 포향이 진동하고 바회와 혼렬환이 성협을 싸
려수간이 문허진대 소상세량장드려왈 스세이와 치급하시니 법가를 몬져 연소성에 되신
후다시 방략을 상의하시라 하고 동문을 열고던지 소상서와 수천기를 거느려 계오성의
에나시니 호병이 임의성을 함몰하고 성중에 돌입하시니 동마량장이 또 혼제군을 거느려
던지를 조차연소성에 올라문을 닫고 방비하시호병이 또 혼군사를 난화임의연소성을
털롱곳치에 워쌌더라 차설연왕이 동마량장을던지씩 보낸 후회보를 고되하시며 국가를
근심하시야 밤마다 잠을 일우지 못하시더니 일일은 월하에란성과계하에건이던 상을우
러러보니 데원쥬성이 흑기에 싸이어 광치황황하시니 란성과모다대경하시정히 녀려
하시더니 북으로 조차오노재 호병이 황성을 함몰함을 전하대연왕이 초언을 듣고 발을 굴
으며 북향 통곡하고 반향 혼절하시니 란성이 더욱 망조하시야 또 혼말씀으로 비록위로하시나
식음을 전폐하고 덩하에 거져 자리를 썰아 북향호음함을 마지아니하시니 란성이 압히나
아가 잔왈 상공이 위국하시스스로 존례를 보중하시지 아니하시니 혼풍로를 좃고하시고 식
음을 전폐하시야 만일 깃디에 질병이 침노하시니 즉 학발량친의 의려지정이 엇더하시며 또

훈국스를엇지코저하시니잇가연왕이감개오열왕성이함몰하야인군파부모의
 안위를모르니내엇지침식이평안하리오또죄명이몸에잇서조전치못하니제간에이
 런망극한일이잇스리오하더니홀연문밖기들내며던시황명을전하거늘연왕이저비
 슈명후쇼셔를퍼볼시눈물이비오듯덤덤이향안에드리며던스를향하야쇼식을조
 세못고개연이몸을니러왕창곡이비록불충하오나군부의위티고심을듯고엇지완
 이형하리오란성을불너닐너와내이제운남지부를보고도병을도발코저하노니창두
 를거느려뒤를쓰르라말을못고지축하야단기로본현에너름애지휘왕망이마져알합
 해엇지하림하시니잇가연왕이눈물을흘녀왈호병이황성을범하야종사홍망이조
 석에잇거늘지휘엇지모르고안젓는뇨지휘경왕하관의지방이황성파절원하야다만
 럽지동순고심을듯습고호병이작란함을실로놀노스오니합하는장춧엇지코저하시
 느니잇가연왕왕내이제사명을넘어뱃비부르시니잠시를저체치못할지라지부는뱃
 비본현병을도발하라하고천이일장겨서를지어남방제군에각각보내니그겨서에대
 강알

燕王楊昌曲 南方諸郡 檄書 傳 時運 不幸 胡兵 犯闕 都城
 연왕양창곡은남방제군에겨서를전하노니시운이불행하야호병이범할하니도성
失守 法駕播遷 中原 自古 禮義之邦 君親
 이실슈하고법가파천이라습하다우리중원은조고로례의지방이라군천이웃듬이
義氣 忠奮 嗟爾南方諸郡 檄書 上自方伯守令 下至
 오의기와충분이잇슬지니차이남방제군이이겨서를보고상조방익슈령으로하지

輿僮 忠義之心 明 臣子 今年今
 여디빅성히만일총의지심이싱기지어닐진디이느우리명나라신지아니라금년금
月某日某時 各各土兵 調發 天子 期會
 월모일모시에각각토병을도발하야던조계신곳으로기회하되만일시각이넘은즉
期會不進 軍律
 기회부진훈군들을쓰리라

연왕이슈불덩필하고문불가덤하야경각잔다써서성야로달너제군에보내고란성과
 들게올나가중창두와던스를다리고망망이북으로가니츠시남방제군이연왕의겨서
 를보고바야호로분분황황하야빅성은말하되연왕은충신이라던지이제쓰시니호병
 을엇지근심하리오우리맛당히이때를득공훈을세우리라하며슈령은왕연왕은명장
 이라군령이엄숙하니어기면죽으리라하야상해물살듯하야군마를거느려시각을다
 도아일제이떠나나아가니라차설츠시던지연소성에에위싸인지철알이라소상세왕
 선우의군석그수를알길이업고또호영채를든듯하야파홀길이업슬지니맛당히성
 문을닫고구지직희여연왕을기드림이을홀가하느이다상이그말을조치사접전치아
 니하니선위날마다성하에니르려쭈짓고육하되요동치아남애다시좌현왕로군을보
 내여싸흠을도도거늘달이분기를참지못하야필마단기로창을들고성에서러대척
 하며로군을취하고저하시니로군이미쇼하고말을싸혀다라난대마달이더욱대노하야
 바로달너쭈고저하더니호진에북소리진동하며척발날이일지군을모라에위싸고저

於陵仲子

향는지라소상계즉시징을쳐마달을부르고다시출전치아니하니성종의군량이전
 향여군시주리고마최업서물이서로썩리를뜻어며어공을결향야육식이초취하
 고좌위속업을먹음을보시고가져오라향샤두어납식을전어향시며요왕넛적의오릉
 중저버레먹은외얏을먹고비로소눈에되는거시잇고귀에들니는거시잇다향더니허
 연이아니로다짐이아샤정신을초틸길어업더니송업을저작향야침을싱김어완연이
 료괴됨을세듯갯도다향신대좌위말슴을듯고불을흠을이괴지못향야혹눈물을흘니
 며동마량장은망성대곡흠을세듯지못향고상이또향추연불락향시더니좌위홀연보
 향되남으로조차일대병매니르러호병을상더향야진을치는이다런저소상셔와동마
 량장을다리고셔에림향샤브라봄에과연일지병이살곳치드러와호진남편에일조
 로진을치고진전에두장쉬완연이나섯거늘상이좌우를보시며문왈이엇더향장쉬료
 동마량장이브라보고주왈이반드시연왕의구병인가향노이다좌편의오사홍포로물
 곳비를잡고서니는연왕이오우편의전포쌍검으로군사를지휘향는자는홍훈달이로
 소이다향니상이화동안적향샤군신이서로치하향야싱로를엇음곳더라차셜연왕이
 운남으로오다가구강싸을지낼시던스를보아왈우리제단괴로가창졸에무슴방략
 이잇스리오구강은조고로군시강건훈곳이라맛당히음중군스를탈취향야감이올도
 다향고즉시구강래슈를보고회하병을청향니구강래슈는본덕로군의가인이라군사
 를즐겨주지아니향야알황명이업스니엇지병당을요동향리오연왕이대노왈그덕국

록을먹고군부의위티향심을동념치아니향니엇지신조의도리며런시여괴림향야계
 시니또향엇지황명이업다향리오그티임의병권으로써창곡을주지아닐진대스스로
 거느려창곡을조조라향대구강래슈요왕빅만호병이창졸에니르러중원일국을절반
 이나일헛스니구강병을말향지말고비록십강병이잇스나엇지향리오향대연왕이대
 노왈내일죽황명을받조와구일정남도독으로버술이오히려몸에잇스니엇지군를을
 쓰지못향리오향고던스허리에찬환도를취향야죽석에래슈의머리를버혀좌우를호
 령향고병부를아셔군마를급히도말향니이에삼천여괴라병고를열고괴치창검을내
 여천이거느리고비일병향향야셔주성십리밖게니르니남방제군의군시모헌재임의
 칠팔천괴러라비로소향오를초려향향시던저연소성에에위싸이심을듯고연왕이경
 왈연소성은디형이높고군량이업스니오래머른죽랑패홀지라우리문져선우의대군
 을물니친후다른경분이잇스리라향고호진남편에일조로진치고남방군스천괴를내
 예에난화만히약속왈금야삼경에스면으로미복향앗다가우리진중에포향이나거
 든데일디일천괴는남합향고호진서편데일각을겁박향되다만괴세를내여호병을요
 란케훈후물너나고두번포향이나거든데이디일천괴는남합향고호진동편데이각을
 겁박향되또향괴세를내여호진을요란케훈후물너나고세번포향이나거든데삼디일
 천괴는호진서편데삼각을겁박향며네번포향이나거든데스디일천괴는호진동편데
 스각을겁박향되다각각괴세를내야덕진을소동향고곳향여급히드러가지말라만

히약속후연왕과란성이 늙은군사 칠천과를 거느려 장샤진을 쳐 중간을 충돌홀서 창
 검가진자는 압세우고 궁시포총은 뒤에 세워 북호소리에 세거름 식음기 되 만일 뒤를 보
 는자는 참하리라 하고 삼령오약 후 밤을 기드릴시 군중을 쥘속하야 적연이 짓거리고
 요동치 못하게 하고 기차 창검을 뒤여 잠든 듯하더라 초시 선위련일연소성을 에워싸고
 호창과상의왕 일편고성에 랑식이 업슬지니 내십일을 에워싼 죽명던지 엇지 항변을 뜻
 지아나리오 하더니 의외구병이 남으로 조차나르러 진제를 베풀고 기척이 완완하야 창
 검을 누이고 십분철의 식업거늘 선위쇼왕이 또 혼유명무실한구병이로다 이반드시우
 리를 관망함이니 금야삼경에 혼북에 못찌르리라 하더니 군중루쉬삼경을 보하야 명진
 중일성포향에 함성이 대작하야 며일지군매진을 겁박하야 서방데 일각을 충살하니 선위
 대경하야 군사를 천이지휘하야 구하더니 다시 두마디포향에 함성이 대작하야 며일지군
 매동방데 이각을 충살하니 선위또 황망이 군사를 지휘홀시 그 뜻출니어 세마디포향에
 일지군매다시 서방데 삼각을 겁박하야 고네마디포향에 일지군매도 동방데 사각을 겁
 박하야 동을 막우 죽서야 요란하야 고셔을 진딩 혼죽동이 요란하니 선위창황하야 항오를
 일코밋쳐 진딩치 못하더니 다시 일성포향에 일디군매남할하야 고진중을 충돌하야 살코
 치드러오니 서리호 혼창검은 비발치듯늘니고련속 혼북소리는 벽력코치진동하야 그
 새름이늘낸비암이 구렁에 지남호하니 초시선우의대군이 창황요란 혼중중간이 닫쳐
 저슈미를 거들길이 업는지라 좌현왕로군이 황망이 선우씩고왈대왕우잠간군사를 물

니쇼서이는 심상 혼구병이 아니라로군이 화광중잠간봄애 명진중지나가는 재연왕이
 로소이다 언미필에 연소성상에 또포성이 나르며 두장쉬렬과를 거느려는 다시 성
 에느러크게 웨어왈야 툄선우는 닷지말라나연왕의 휘하 장동초마달이라 당홀재잇
 거든나오라하야 좌우돌하야 범코치식살하니 원리동마량장이 연왕의 군사호진을
 충돌홀을 보고바야호로업던기운이 절노나는지라 진왕의 보낸바삼천렬과를 거느리
 고 호진을 충살하야 연왕을 마즘이라량군이 합력하야 호병을 짓치니 선위엇지더당하
 리오패군을 거두어수리박게물너가니 죽음이되코류혈이시내를 일웠더라던지 성
 상에서 보시다가 소상셔를 보샤왈짐의 연왕은 하늘이 주신바라 충성과 장략이세갈무
 후로도 당치 못홀지니 금일군신의 처상호기운이 혼번연왕의 북소리를 드름애 일시에
 활동하야 우물속의 무르고기물엇음호니 이는 다 국가의 복력이 오신명의 도으심이
 라짐이이제 성외에나가 친이마즈리라하시고 죽시성문에나시니 연왕의 군사 임의성
 하에나르러 황망이하마하야 복디청외홀시 눈물이 재암솟듯하거늘 상이 좌우를 명하
 샤연왕을 붓들어 나리혀 천이그손을 잡으시고 룡포소매로 일골을 그리오샤군신이서
 로울기를 마지아나하시니 좌우제신이 막불감동하야 모다 눈물을 뿌리더라상이량구
 무어하시더니 바야호로 연왕의 손을 노호시고 왈 짐의 무궁혼심스는 창졸에다 못홀바
 라성중에드러가군신일석에 구일정회를 다퍼리라하시고 연왕과성에드르샤군마를
 다안돈후연왕을 답전에인견하실시소상셔와동마량장이 좌우에시립하엇더라상

이 다시 연왕의 손을 잡으시며 왈 조고로 혼암 혼인군이 허다하니 엇지 짐 조 혼 재잇스리
 오경의 충성과 파로군의 잔악함은 옥석이 현슈하고 후벽이 분명하니 늘하늘이 짐의 충명
 을 가리시고 조물이 국가를 희롱하야 이디경을 조취하니 왕스를 생각할 줄어느면 목으
 로 경을 더하며 무슴 말로 경에게 사레 하리오 연왕이 돈슈왕이냐 다신의 불충을 죄라 만
 일일월 지명이 아니신즉 엇지 다시은 충을 남스외 금일이잇스리 잇고 상이 쇼왕잠이엿
 지로군의 잔악함을 물릇스리오 마는 그말 숨이 들고 괴식이 아당함을 도히녀여 못츨리
 취혼사름이 되얏스니 천추만세에 어두운 일함을 도망치 못할거시오 지어경의 향국지
 성은 언하벽성과 가동주졸이 모를 재업거늘 군신지간에 짐이 엿지 아지 못하리오 다만
 병이 깊고 약을 씌매 그유익함을 세듯지 못함이 라 숨호다 우리량의 일편심을 오죽신
 명이 조림하니 경은 왕스를 개회치말고 종금이 후로 더욱 직간하야 짐의 불례함을 겁게
 하라 연왕이 눈물을 흘녀왈 금일하피이 에 밋치시니 다시 앙달할말 숨이 업스오나 이는
 신등의 불충무상 혼죄라 요순지성으로 도고기적설의 찬양함이잇스오나 폐하의 일월
 지명으로도 이 조 혼 환란을 당하심은 조정에 신해업는 연과라 복원폐하는 다만 왕스를 추
 회치말으시고 고리 두를 삼가 신즉 금일랑패함이 라 일징게 되올지니 엷지 국가의 복이아
 니 리잇고 상이 기용탄식하시며 소상셔를 보사왕 짐이 오래 취몽이 깊혔더니 금일 다시
 연왕의 말을 드름에 봉황이 조양에 우는 듯든 연이 정신이 도라움을 썩드르리로 다 연왕
 이 다시 주왕신이 금보를 듯좁고 단기로 오다가 구강싸에 이르러 군스를 도발코져 호은

鶯、鶯、稷

죽구강태쉬즐거듯지아니하거스세 금박하야 군를로 썩참슈호 후회하병을 탈취하야
 왓스오니 이또 혼 품달치아니하거고 망술히하바라 불승황공하느이다 상왕경이 전일정
 남도독으로 벼슬을 갈지아니하얏스니 혼변장쉬된즉 군령을 종신 씌은 국조고셔라 하
 물며 경의 벼슬이 대신이 오짐이 비록 불명하나 구강태쉬 군부의 위티함을 보고 이긋치
 티만하니 그선참후계함이 또 혼 위국 혼 충심이 라 엷지 죽히사 죄하리오 하시고 좌우를
 보사왕 구가슈는 엷더 혼 사름이 뇨좌 위왕이 는로 군의 가인이니 이다상이 단왈 네말에
 충신은 효조의 문에 구하라 하얏스니 쇼인의 문인이 엷지 이심을 두지아니 리오 하셔더
 라 연왕이 우주왕도성이 임의 할불하고래 휘량면이 진남성에 계시다 하오니 진남성은
 성지든 든하고 군량이 죽혼 곳이라 비록 다른 념레 업스오나 국스의 망극함이 에 밋스
 오니 이또 혼 신등의 죄로 소이다상이 할루하시며 왕항래 휘일죽짐을 권면하샤 경을 다
 시 쓰라하시니 래후의 경을 밋으심이 래산 반석 조호시거늘 짐이 불효하야 면계하심을
 봉승치 못하거이 제 일편고성에 고초를 감슈하시게하니 이는 짐의 죄라 다만 경의대인
 과윤각로 일지련의 지구 혼 충성을 힘납어 일심으로 보호하니 경의 부조의 래산 조 혼은
 덕을 엷지 다 갑호리오 연왕이 이말 숨을 듯고 놀나량이 말이 업스니 원리래예의 병을
 니리혀진남성에 잇숨을 듯지 못함이 라상이 괴식을 알으시고 다시 위로왕래예 비록 쇠
 경이나 스신의 소전을 드름에 근력이 강건하가시부니 경은과도이 념려치말라 연왕이
 돈슈왕신의 아비분 더질병이 만코성 품이 청고하야 비록 한적히도 양하나 불평할날이

만커늘이제시석풍진에이긋치고호오니비록평일홍중에품엇든총심이오나신이
 우흐로불충호와폐하로이욕을당하시게하고아래로불효호야늙은부모로안향치못
 할게호오니이를싱각호즉홍중이역석호야합연이모르고저호는이다상이키용샤레
 왕이논짐의과실이라실로경을위로호말이업도다호시고홍란성을차즈시니란성이
 랫전에부복호대상이위로왕경의렬협지풍은짐이드른지오래나만리악디에가동으
 로변복호고풍진남북에이긋치구치호니는다불명호인군을맞는연괴라짐이그얼
 골돌바를아지못호노라란성왕신첩은은녀지라운남에변복호도가부를위함이오풍
 진에구치호도가부를조침이나시운이불행호고국개요란호와녀즈유행이규문을직
 희지못호고련안지척에자로이긋치보오니참괴담돌함이만스오이다상이미쇼호시
 며다시연왕을향호샤왕제간에홍란성일인이잇슴도괴이호일이어늘다시알지련벽
 성선의탁월호충성이잇스니이호천추만제의희귀호일이되리로다호시고선랑의풍
 류로써간호든일과련랑의래후를보호호든말을일일이치샤호신대연왕이일변호나
 며돈슈주왕벽성선은신의첩이라련성이유약호오니무슴총렬의포장호배잇스리잇
 고이호다폐하의일월지명이스스로추회호실괴회를당호심이라다만일지련은홍호
 탈의다려온바라동시녀지라지괴상중호야무예의정묘호음과위인의괴경함이홍호탈
 과방불호야거의우렬을질덩치못호지라이때를당호야래후량년을보호호음이범상호
 장슈로써당치못호가능이다상이지삼칭찬호시고인호야군무들의로호실석연왕

으로평로대원슈를호이고호홍호탈로부원슈를삼으시니란성이복디왕신첩이향일
 남정에황명을스양치못호음은오히려종적을금초아남조로저호음이나금일은본
 식이이러호야불과일키녀지라야모리조당에신해업고중국에인제부족호어나엇지
 일키녀조로장단에올나삼군을호령케호시리잇고이호다만제장군졸의슈치될뿐아
 니라북로에게견모함이불쇼호가능이다상이쇼왕짐이연왕을급히부름은정신이
 전혀경에게잇슴이라이긋호흔때를당호야호변슈고호음을스양치말라란성이돈슈왕신
 첩은본디천인이라청루창기로은총을남스와빅모왕월을좌우에세우고제장삼군을
 휘하에살님은극진호영광이오저마다소원이라첩이엇지스양호리잇고마호고셔에
 운호되빈게스신은유가지삭이라호얏스니압호이재벽을맞호미길죄아나라호물며
 군중은중디라원슈는중임이어늘이제홍군을벗고갑옷을넘으며단장을파호고괴와
 북을잡아가는눈섭에살괴를씩고공교호호우음으로덕국을호령호즉그괴상이장호엇
 더호리잇고첩은또도스오니병자호동물이라전혀양괴를쥬장호는니만일녀조로장
 슈를삼은죽이호음괴로양괴를거는림이니엇지괴호배아나리오폐해만일신첩을총
 의호샤그지조를다시시험코저호실전대첩이원컨대가부를쓰라슈하편비되야견마
 지력을호축호가능이다상이량구침음호시다가하호시고소유경으로부원슈를삼
 으시고호탈로표요장군을삼으시니라차설선위대군을슈습호야수리밭게물너다
 시진을치고호장척발날과좌현왕로군을디호야왕과연연왕의용병호음은명불허득이

라엇지찌디덕하리오로군이쇼왕래청진인이아니면연왕을당홀재업스나만일겨동
 치아니흔죽엇지저조를다하야서로도오리오선위이에진인을보고살어고왕과인이
 빅만대군을거느려중원을절반이나엇더너의외강력을맞나대공을일을길어업시
 되니선성은회칙을그치쇼서진인이문왕강덕은누구이노선위왕과인이북방에잇
 슬때에드르니연왕양창곡은당제일인이라던문디리와풍운조화지묘를무불동지하
 고륙도삼략과둔갑변화지술을평성조부하야스스로말하되던하에덕쉬업다하더니
 이제그용병함을잠간봄에과연신출귀몰하야당홀재업슬가하노이다진인이쇼왕대
 왕이빈도를겨동코저하노다다선위왕려하야이업시탄왕좌현왕의말이올도다하
 거늘진인이문왕을흔말이무슴말이노선위왕좌현왕이말하되선성은불과일기도시
 라연왕의흥런지지를당치못홀지니조연도라감을싱각하리라하더이다진인이링쇼
 왕빈되십년산중에용병지술을또홀강마함이잇스니대왕은다만몬져점점하야만일
 급홀일이잇슨즉빈되조연구홀방략이잇는이다선위대회하야나러저비하고즉시진
 인과군소절반을본진에머드려영채를지회게하고그중정병을싸아연소성하에니르
 러진제를배푸니승위엇지된고하회를보라

데삼십륙회

홍표외그만이굉던포를못고

紅標姚暗埋轟天砲

양원쉬좌현왕을수죄하다

楊元帥數罪左賢王

각필연왕이황명을받조와남방군스를모호니이에일만칠천과라연소성하에진을베
 푸니선위역시대군을거느려상디하야결진홀후원쉬홍흔탈을다리고진상에올나호
 진을브라보며왕자군은보건대남만과엇더하노흔탈왕인물의호한홀과기제의녕류
 흠은남만으로당치못홀거시오진법의착란홀과향오의서어흠은남만을못당홀가하
 느이다연왕이덤두왕이정하나의근심하노바라북회본디산금야슈와다름이업서그
 취산이무덤하니병법으로료락치못홀지라다만형세를보아용병하리라하고군사로
 웨여왕대명원쉬선우와슈작홀말이잇스니진전에나서라흔대야이오선위진압하나
 서니좌편에좌현왕로군이오우편에호장척발날이라선우의신장이팔척에지나고위
 풍이름름하야우슈에장창을잡고좌슈로물곳비를잡아괴상이그장녕후하더라양원
 쉬부지져왕내비록런명을모르나무단이중국을침노하야무죄홀성령을공연이소동
 하니그죄를아는다선위대쇼왕과인이북방에처하야소문을드름애중국에지극흔보
 킷잇다하니그를탈취코저와노라연왕왕우리황데페해성신문무하시고빅성을스랑
 하시니만일금주보패로써도란중에든빅성의목숨을받고실진대엇지앗기시리오선
 위머리를흔들며다시우어왕과인이엇지삼상흔보패를구하리오만일명던조의를쉬
 를준주파인이이제로도라가라라연왕이대노하야동마량장으로릴과삼천명을거느
 려일시에시살하니선위웃고말을들녀다라나며일성포향에결진하얏던만여명호병

이일제이호터져무리무리짓거리며혹산으로올나가며혹들가온디로형처하야인마
 의늘냄이풍우긋흐니준떡하야조출곳이업는지라원쉬이거동을보고즉시정을쳐동
 마량장을거둔대다시일성포향에호혀졌든호병이일시에모혀의구이결진호고선위
 진전에나서며쇼왈양원슈의장략이신통하나오늘은쓸곳이업슬지니과인의물달니
 는법을보라하고슈중에쌍창을들고흔번채를침애범호흔물이번개긋치다라나언
 덕과구렁을평디긋치지나가니선위마상에춤추어혹누으며혹나려나서좌와과거를
 임의디로하더니홀연일기호장이또물을달너나오며선위를쫓는데하니선위두어박
 화를쫓기여든이다가홀연근두쳐뒤호로떠러지며침더호장을안고인하야호장파달
 을긋치르두어박화를달닌후도로몸을근두쳐수십보밖에달는물개을나돌쳐호장을
 쫓거늘또랑기호장이일시에물을달너나와네물이흔디어우러져일변다라나며서로
 물을밧구어르되그새름이풍우긋더라야오모든호병이일제이물을노아나오며혹
 마상에가로누어달는자도잇스며혹뵤물을채쳐압히노코다도와몸을소사르느자도
 잇스며혹근두쳐물다리스이에숨는자도잇스며혹넙히물을달취하야쌍물을르느자
 도잇서천티만상으로일장을작란하니양원쉬비라보고홍표요를보아왈이느부호의
 장기라무비강병이니적지아니흔근심이로다홍표외쇼왈쇼장은보건대불과으히의
 최통이라무엇에쓰리오즘승을조차호표를산양흔은죽하오나만일덕국이상터하야
 병법으로싸호고져홀진대도로혀호혀지기쉬울지라쇼장이흔묘법이잇서장게취게

하리이다양원쉬대희하야계교를무르니홍표외만히고왕첩이빅운도스를조차일
 기과진하는법을비호니일혹은굉던피라싸을과고십이방위를응하야큰가마를못고
 화약과털환을가마에긋득붓고썩에를덥고좌우로공글동하야히즈를과화승을느리
 혀십여보식큰그릇에물을담아못느니화괴슈괴를엇은즉새지아니하고또흔슈괴
 능히화괴를인도흙이라다시빅여보밧게도글을못고화승삿을히즈로인연하야도글
 로동흔후군스수빅명을도글에미복하얏다가새를맛초아불을다리게하느니이법이
 비록쓸곳이적으나금일호병이다시진을뵤고다라난즉우리군스를움겨그곳에진치
 고계교를형홀가하오나다만화약털환이죽흔후되리이다원쉬즉시성중군고를열고
 보니오히려털환수십석과화약수천근이있더라원쉬대희하야동마량장을불너각각
 삼천괴를주어여쳐여쳐하라하고소원슈와홍표요로더부러대군을모라다시호진을
 엄살흔대과연호병이접전치아니하고일시에호혀져다라나느니라원쉬인하야호병
 의진첫든곳에진을치니선위비라보고쇼왈명원쉬의계교업슴을알니로다우리진을
 빼슴은장춧멀니조차다시오지못하계흙이라맛당히영채로드러가밤을기드러만
 히와갑박하리라하고호혀진호병을모화드러가거늘원쉬홍표요로더부러진중에굉
 락포를쳐쳐에못고군스를약속하야창검을누이고신디를떠나히히흔거동을뵤애선
 위대희왈우리군시런일접전치아니하니명병이즈연방심흙이라츠시를르흔북에못
 씨르리라하고정병칠천괴를거느리고두길로난화시야삼경에각각합딛하고명전에

달녀드니원슈가짓점전수합에패하야다라느니척발날이군스를모라쫓고저하니선
 위듯지아나고왕중국사름이귀솔이난축하너우리맛당히다시초쳐에결진하고스
 괴를보아하리라하더라초시선위호병을지휘하야의구이진을치고명진동정을츄히
 더니시야장반에홀연일성포향이싸호로조차소사홀몽처불덩이진중에편만홀중그
 뚫을니어무수포향이스면팔방으로연속부절하야일시에니러나며던봉디락하느듯
 훗혀진불과방향업느럴환이다닷치는곳마다인매초레로업다지니철천명호병이밋
 처회피치못하야게오도망흔재천여괴라선위황망이물게올나진문을날식나느럴환
 이물머리를바수어물이업더지니선위락마하며즉시몸을소사호병의물을써서두고
 단괴로도망하더니홀연산모둥이에흔마디포향이내며일지군매길을막고일위장군
 이대척왕대명표괴장군동최여괴잇서기드리니선우는닷지말라하늘선위싸홀쫓
 이업서길을에워다라날신포좌편에함성이대작하며일지군매길을막고일원장군이
 대척왕대명던장군마달이여괴잇스니야틀은닷지말라선위정이황겁하더니척발
 날이수빅명호병을거느리고니르러선우를구하니동마량장이좌우협공하야일장을
 짓쳐다시박여괴를못찌름애선위게오몸을싸혀영채로드러가래청진인을타하야량
 패홀곡절을일일이말하니진인이쇼왕이느소위굉던되라만일모르고게교에싸진즉
 전군이함몰하느니다만그못는법이비밀하야방위를착란하면불이써지고공을너루
 지못하늘명원슈엇지히득하노하더라선위살어진인씩고왕금일랑패홀도선성이

돕지아니하신바라명원슈의장략이이긋치신통하니만일선성이고던치아니신즉출
 하리군스를거두어일즉도라가어욕됨을면할가하느니다진인이쇼왕명일은변되맛
 당히대왕을조차명진동정을본후힘터로도을가하노니대왕은변되치말으쇼서선위
 대희하야의일진인과대군을거느려다시연소성하에결진하고싸홀을도도니라차설
 홍표외굉던포를시험하야호병을못찌르고군중에와다시선우의동정을기드리더니
 군중에새벽루슈싸어지고정신이곤되하야장중의셔안을의지하야스몽비몽중일위
 로인이갈건을쓰고빅우션을들고장읍하늘놀나보니이에빅운도석라홍랑이반겨
 저비왈스워어더로조차오시느니잇가도석부담하고츄연이홍랑의손을잡고눈물을
 흘니며왈삼년산중의고정을싱각할지어다하고거체업거늘홍랑이창연홀중스부를
 부르며놀나세니동방이괴빅하고심신이쳐창하야원슈를보고몽조를고홀후침음불
 락왈스비일즉철의꿈에루초퇴오나웃느얼골로서로반기더니이제홀연쳐량할루흠
 을보니반드시길죄아니라금일은전문을닷고선우와접전치말으심이도홀가하느이
 다양원슈웃고위로하더라이우고제장이보왈선위다시대군을거느려도전하느이다
 원슈질것진을곳쳐무곡진을치고진문을닷쳐요동치아니하더니동마량장이또보하
 되선위수초호병을보내야도전하다가요동이업슴을보고이제로군을보내야도전하
 느이다원슈초언을듯고분연이니러나알내맛당히반적의머리를몬져취홀후홍노를
 멸하리라하고친이진상에올나브라보니로군이십여괴호병을다리고진전에니르러

伍子胥

風賜

물을잡고 웨여알연왕은내말을드러보라넷글에하얏스되비도전에량궁이장하고교
토스에주귀평이라하얏스니조고로중국은구괴익식흔나라이라인지를용납지못하
거늘다만쇼년에과를밧고남정북벌에은총을탐하오오저의축루검이며리에나려
짐을쳐드지못하니엇지한심치아나리오로뵈비록선견지명이업스나한나라리쇼경
을효추하야호중부귀를누릴지니숨흐다그디타일할양지상에황권을탄식할때고인
의말이충곡임을알니라원쉬대노하야진전에나서며썩지저말

反賊 盧均 凶壯逆腸 面目 天日 照臨 罪

네모르리오네훈아비로과는당나라쇼인이라제세조손이종락을전하야네몸에밧

치니군조는비척하고국가브린바여늘우리황제폐하요순지성으로너를슈습하

샤벼슬이참정에나르니맛당히충성을다하야던은을도보하고명절을다가풍을

써서브릴지라이제참아나라를그릇쳐군부를저브리고흥노에게굴슬하야더러운

가풍을더욱더레이니네죄하나히오하늘이사름을내심애금슈와다름은오륜이잇

슴이라군신부조는오륜의웃듬이어늘네이제잔사할말과반복흔정리로군부를롱

락하야천리히상에외로이브리고적전에투항하야도로혀겁박하니이엇지참아할

絡 千里海上 賊陣 投降 禽獸 屈膝 五倫 君臣父子 五倫 反復 情態 君父 籠

바리오네죄두가지오네부모의분퇴중국에잇거늘도라보지아니하고호디에투싱
하니욱어진풀과소슬흔빚양은목슈초동이서로마르치며썩고욕하야왈이논역
신로균의선영이라하고도채를매어나무를씩으며우양을노아분묘를짓몹아업시
하리니한식청명에주린흔령이츠크이울며조손을싱가하야그의탁업슴을슬허할
제네참아호중부귀를맛드려누릴소나네죄세가지오공명과부귀는장차문호를밧
내고내몸을영화롭고저힘이라네죄조를식고권세를탐하야서비를역제하고
공의를분적하니중국에잇서쇼인지목을도망치못하며호디에잔후반국지신을누
공경하리오이를모르고양양조득하니네죄네가지오조고로쇼인이작죄흔재모르
고범흔죽오허려용서할배잇스나알고범흔자는용납지못할지니네일즉성인의글
을읽고성인의말을드러선비의관을쓰고선비의웃을납은지라엇지흔죽충신이오
엇지흔죽잔신이며이리하면나라이평안하고더리하면던해위티힘을쇼연이알며
짐짓그르치니네죄다섯가지오네시종을조구하야례악을말하니과연동홍의성황
이선왕지악에갓가오며불시의봉선하심이선왕지례에합흔줄로알앗는다속으로

父母 墳墓 中國 胡地 偷生 逆

蕭瑟 白楊 牧豎 樵童 牛羊 墳墓 依托

魂靈 啾啾 子孫 功名 富貴 門戶

寒食清明 胡中富貴 榮華 才操 猜忌 權勢 貪

公議 奮激 中國 小人之目 胡地 叛國之臣

揚揚自得 罪 自古 小人 作罪 聖人

容怒 犯 容納 昭然

罪 平安 天下 忠臣

姦臣 侍從 自求 禮樂 果然 董洪 笙簧

不時 封禪 先王之禮 合

先王之樂 罪 侍從 自求 禮樂 果然 董洪 笙簧

先王之樂 不時 封禪 先王之禮 合

先王之樂 不時 封禪 先王之禮 合

우으며것흐로동락하니네죄여섯가지오의봉녕상에풍류들드르실때간관을죄주
 大 臣 削 黜 國家 興亡 朝夕 君父 激動 過舉
 며대신을삭출하니국가흥망이조석에잇거늘네참아군부를격동하야과거를도으
 罪 董洪 不過 輕薄 老凶 經綸 恐動 奇
 니네죄닐곱가지오동홍은불과경박흔재라네로홍흔경륜으로달니고공동하야
 貨 朝廷 濁亂 罪 皇城 陷沒 後天子 欺罔 兩殿
 화를삼아조명을탁란하니네죄여덟가지오황성이함몰흔후던조를기망하야량
 安危 茫然 罪 計較 窮盡 反心 包藏 自願
 안위를망연이모르시게하니네죄아홉가지오계교궁진흙애반심을포장하고조원
 出戰 姓名 投降
 출전하니네죄열가지오성명을도망하야임의투항흔즉맛당히자최를금초어비록
 中心 一分 慚愧 之色 自首 臣下
 중심은즐거오나일분참괴지식을듬이올거늘이제백슈를호늘니고선우의신해되
 胡兵 陣前 挑戰 諸將 軍卒 單于 罪
 야호병을거느리고진전에도전하니엇지제장군졸이붓그럽지아니하냐네죄열
 私事 碌碌 登科 之初 榻前 論罪 公心 罪
 가지오스스원슈로말함이특룩하나내등과지초에답전론죄함이진기공심이며진
 不過 才操 猜忌 恩寵 如意 嫌怨 遊街 賤
 기그름을봄이다불과죄조를괴기하야은총을다름이니네죄열두가지오유가하
 雞心 猜忌 結婚 如意 罪 董洪 賤
 날에잡심을두고누의를가져결혼코저다가여의치못함애혐원을밧고동홍은천
 宜福 貪 偷氣 娼妹 之誼 罪 嚴教
 인이라환복을담하야류괴를모르고남미지의를미즈니네죄열세가지오내업교를
 雲南 萬里 惡地 生還 期約 罪
 밧즈와운남으로가니만리악디에성환홀괴약이업는지라그만하면네모음에괘하

려든다시간인과조식을보내야방계곡경으로살해코저하니네죄열네가지오내비
 奸人 刺客 盤谿 曲運 殺害 潤色 恐動 罪
 록불충하나네말에요동치아닐바여늘간악흔부리로말을윤색하야공동코저하니
 不忠 搖動 奸惡 無知 少年 罪
 네죄열다섯가지라창던이저상하시고신명이지방하니비록무지쇼년이흔가지
 惴惴 慄慄 蒼天 在上 神明 在傍 彌天 大罪
 를지어도체체들들하야그죽을바를알지못하려네이제십오가지미던대죄를무
 禮法 大 臣 之列 參 與 天子 禮待 後進 欽仰 對策 罪
 립쓰고자촉어되로가라하느다습흐다창곡이여남슈지로조신던에디척홀시네임
 胡王 命 禮法 大 臣 之列 參 與 天子 禮待 後進 欽仰 對策 罪
 에호왕의명을밧아며물골이무어신다셀니도라가선우의게전하라준준호오랑캐
 父 母 子 息 盧 均 亂 臣 賊 子 時 刻 人 君 臣 下 罪
 비록레법을모르나북방에도응당하늘이잇고싸히잇스며이군이잇고신해잇스며
 方 風 俗 懲 戒 罪
 부피잇고조식이잇슬지니로군호흔자는란신적지라시각을두지말고참슈하야북
 方 風 俗 懲 戒 罪
 방풍속을징계하라홀지어다
 원슈썩짓기를다함애로군이얼골이취하고괴운이막히여호마디소리를지르며락마
 하니호병이구하야본진에도라와반향을너짜진사름굿더니바야호로정신을차례하
 늘을근처밍세월내연왕을죽이지못흔즉세상에잇지아니라하고진인과선우를
 디하야분연왕양원슈의무례함이대왕과진인을초개굿치알아그하느말이무도호오

랑캐와 요란한 도사를 할칼에 버히라 하니 대왕은 장차 엿지 썩설치코져 하느니 잇가
 진인이 쇼왕좌현왕은 번외치말으쇼셔 빈되 비록 무지하나 금일명원슈와 조웅을 결하
 리이다 하고 천이진상에 올라 북을 쳐 진을 변하야 일기 방진을치고 중앙방에 후과를 썩
 쳐 만히 작법하니 초시홍표외 멀니 바라보고 놀나 원슈씩고 왕호병이 홀연 진을 변하
 야 심분병법에 합하니 이는 반드시 마르치논 재잇슴이라 또 혼진중에 검은귀를 썩졌스
 니 장차 도술을 부려 우리를 겁박코져 함이로 소이다 동최왕쇼장이 드름에로 군이 일기
 도사를 청하야 띠지 썩천거하니 그도 호는 청운도사라 도술이 비상하야 일즉 선견을 청
 하야 궁중에 강림케 하고 신장귀줄을 불너 빅성의사비하는 자를 일일이 금제한다 하더
 니 금일반드시로 군을 조차 선우를 도음인가 하느니 다홍표외 초언을 듯고 심중에 대경
 왈이엇지도 동청운이아니나 청운의런성이요 망하야 스 뷔미양근심하시더니 만일이
 못치작란흔죽그되 큰지라 장차 엿지 쳐치하리오 하더니 홀연 호진의 북소리 진동하며
 무수호병이 청기와 청의를 닦고 쌍쌍이나 오며 슈중에 각각적은 호로 병을 들어 일시에
 공중을 향하야 한번흔들매 천만줄기 푸른귀운이 병속으로 나와 공중에 마드하더니 홀
 연 광풍이 대작하며 천만줄기 귀운이 변하야 낮히 창검이 되야 하늘을 덮히 명진을 지
 치고져하거늘 홍표외 웃고 급히 북을 쳐 진을 변하야 일기 원진을치고 진중에 북은귀를
 씻고 슈중쌍검을 들어 공중을 한번 마르침애 흔줄기 서리 못흔귀운이 갈뚝히 나러나 광
 풍과 창검을 모라 진중에 떠러지며 낮히 화하야 푸른님식되는지라 홍표외미쇼하교

그남석을 집어 오라 하야 저세보니 낮낮히 갈흔적잇다라 죽시봉하야 호진으로 보내
 니 초시진인이 도술을 힘코져하다가 일우지 못함을 보고 일변 놀나며 의심하야 왈내십
 년산중에 스부를 조차도 술을 비화 힘던하에 당홀재업거늘 이는 반드시 꼭절이잇슴
 이라 하더니 홀연 명진에서 일기 봉흔거슬 진전에 던지고 가거늘 집어보니 이에 무수흔
 풀납사귀라기기가 갈흔적이 완연함을 보고 진인이 더욱대경하야 만히 생각하되 이
 는 범상흔 장슈의일이아니라 반드시 우리스 뷔명진에 강림하사 대명던즈를 돕고져하
 심이니 내 맛당히 금야에 명진에 가동정을 본후다시 생각하리라 하고 선우를 뒤하야 왈
 금일은던준이 입지하시는 날이라 도가의 용병을 괴하느니 명일 빈되다시 경륜하리라
 하더라 진인이 명진에 가엇지 할고 하회를 보라

데삼십칠회

청운도사네동학으로도라가고
 야 툴선위동편성으로다라나다

靑雲道士歸故洞
 耶律單于走東城

각설시야삼경에진인이몸을변하야흔줄기 푸른귀운이되야 명진에나르나 초시홍표
 외축을 부리고셔 안을 의지하야 홀노안졌다니 홀연 일진 청풍이 장을 거두치며 축하에
 청괴살 못치드러오거늘 홍표외 손을 들어서 안을 치며 썩지져 왕청운아네엇자나를 속
 이는다진인이대경하야 이에본형을 드러내야 일기도동이되야 홍랑에게안치이며홍

랑의 손을 잡고 할루왕스형이 었지 처처에 계시요 청운이 스형을 떠는 지 임의 팔구년이
 라 주야 일념이 스형에 게잇스나련개 남북에 쇼식이 창망하더니 었지 금일 처처에 계시
 을 아 랫스리 오홍랑이 정석왕스뷔셔련으로 가실 제 너를 경계하시며 인간에 망령되이
 출각지 말라 하시심은 다름이 아니라 천성이 경솔하야 잡술을 도화함을 념려하시니
 네이 제요 망혼술법으로련디 신명씩곤 죄를 짓고 청정하신 우리 스부의 공덕을 회적시
 니 내 었지 석일형 데 지정을 도라보아 용서하리 오내 슈중에 일쌍부용검이 잇스니 맛당
 히네 머리를 버혀스부싸레하리 라 청운이 울며 슬어고 왈스형아 청운이 었지 악업을
 짓고져 흠이 리오스형은 식노하고 청운의 말을 드려보쇼셔스형은 만왕을 쓰라하산하
 시고 스부는 셔련으로 가시니 적막 혼백운동에 누구와 므음을 붓치리오 청산에 셋이 떠
 러지고 향로에 불이 살아 지니 인성벽년에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야 잠간련하를 구경코
 저하야 동으로 부상을 보고셔으로 약목을 차자 부방을 편답하며 중국에 니르니 도모저
 취몽제 게오 가쇼인성이 라 출중 혼인물과 락월 혼지국이 우리 스형은 혼재 업스니 청운
 이 과연 어 린 소견으로 혼번도 술을 빚내여 인간을 놀 내이고 갈가하얏더니 의외에 스형
 을 이곳에 맛남은 또 혼인연과 운쉬라 무비하늘이 지도하신 바니 스형은 용서하쇼셔 흥
 랑은 본디 다정인 조흔녀 지라 바야 호로 청운의 손을 잡고 할루왕내 평성에 부모형 데 지
 정을 모르고 표박종적이 산중에 의탁하야 스부를 부모로 알고 너를 동귀로 처정을 붓쳐
 비록 풍전남북에 회합홀귀약이 업스나셔련라 일에 인연을 다시 이어 줄길 가하얏더니

네 었지 스부의 혼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긋치세 상을 요란케 하노내 작야 몽중에 스부
 를 뵈옵애 일언이 업고 다만 비창하야 삼년산중의 고정을 생각하라 하시니 이너를 부
 락하심이라 내 었지 너를 저버리리오 셤니 도라가 산중에 도를 닦가 망념이 업슨 후공부
 를 일우라 청운이 쇼왕스형이 누구를 조차여 괴오시요 홍랑이 쇼왕네스형이 또 혼공
 부를 일우지 못하 고 잠간진제 인연을 미져가 군을 쓰라 왓노라 청운왕가군이 뒤신고 홍
 랑이 미쇼왕지 금원슈연왕이 시니라 청운이 다시 쇼왕연왕의 장락이 출중하야련하의
 일인이라 하 기 청운이 혼번제조를 결워볼가하얏더니 이제 스형이 가군으로 섬기니 경
 문적국이 응당스형에 더 홀지라 청운이 잠간 뵈옵고져하느이다 인필에 홍랑이 답지 못
 하야 표연이니러 변신하야 적은 파리되야느라 양원슈장중으로 가더니 아이오도라와
 단왈스형아 양원슈는 법인이 아니라 이에련상문창성군이러이다 서안을 의지하야 무
 곡병셔를 보다가 청운이느라 셔안머리에 안증애원쉬 혼번눈을 흘녀보시니 량안에 일
 월광이 빛최여스스로 므음이 송연하야 오래보지 못하 고 오니이다 홍랑이 쇼왕네 다만
 외모를 보고 었지 일분 취탁하리 오래 산긋치 놓호시며 하히긋치 갑호시며 문장을 의론
 혼죽이 십팔쉬홍중에 버렸고 장락을 말슴 혼죽씩만 갑병을 북중에 용납하시니 었지네
 스형의 우러러볼배리 오청운이 단식고다 시고 왈 청운이 이제 스형을 위하야 호진에 가
 션우의 머리를 취하야 죄를 속하리이다 홍랑이 쇼왕이 또 혼불가하니 양원쉬황명을 밋
 조와 빅만대군을 거느리고 었지 이긋치 구차 혼일을 행하리 오 션우를 이긋치 죽이고져

홀전대네스형의쌍검이죽홀지니엇지네손을빌니오다만속히도라가종적을금초라
 청운왕청운이이길로도라가오니어느날다시외오리잇가홍랑이역시손을잡고창연
 혼눈물을금치못하야왈네이제도를세드른죽타일옥경청도에스부들긋치되서런상
 극락을길이누리러라청운이올며저삼도라보고잔디업거늘홍랑이축하에홀노안져
 반향을초창하더라청운이호전에도라가만히성각하되내이제로군과선우를작별
 코저홀죽또홀인정을세칠길이업슬지니출하리고치말고가리라하고즉시폴납셔를
 뜻어한번더지며진언을넘하니완연홀일기가청운이되야용모거동이즈기와호말이
 다름이업거늘청운이웃고몸을소사일진청풍이되야빅운동으로가니라홍랑이원슈
 쇠외음고청운의일을일일이고하니원슈정석왈내빅운도스를물외고인으로알앗더
 니엇지이긋치요한흔데즈를두노내만일알앗드면홀칼로버혀선우를호령하얏스리
 로다홍랑왈청운의런성이비록잠간요망하나술업이정동하나다시정심하야상승지
 도를세치려니와무비국가운쉬니엇지청운의죄리오원슈쇼왈청운을위하야너모발
 명치말라하더라차설의일청신에선위래청진인을차자니름애오허려장이닷치고동
 정이적연하거늘선위장을겅고보니진인이올연독좌하야불언불쇼하니선위압히나
 아가고왈선성이야리에존래보중하시니잇가진인이적연부담흔대선위다시고왈금
 일싸홈에선성이장춧엇지도코저하시니잇가진인이또부담하거늘선위의아하
 야량구히안젧다가나와로군을보고진인이여쳐여쳐함을말하니로군이침음왈이느

반드시곡절이잇슴이라하고즉시장중에드러와죄비문왈선성이엇지불평하신괴씩
 이게서니잇고진인이또부담흔대로군이반향을안젧다가다시고왈선성이로군을조
 차이곳에강림하시니만일심중에미타하심이계실진대엇지로군을디하야총곡을앗
 기시느니잇가진인이또부담하니로군이그곡절을세듯지못하야장외에나와선우와
 상의왈진인이십분노식이잇서종시요동치아니하니우리맛당히긋치드러가보고빌
 니라홀대호장척발날이대노왈요마도섯엇지이긋치거만하노내맛당히드러가보리
 라하고칼을잡고장중에드러서며크게소리왈내드르니도술이놓흔자는목을버혀도
 요동치아니한다하니시험하야보리라하고칼을들어진인을홀번침에칼이징연이셔
 러지며진인은잔디업고다만홀조각폴납셔칼에마저두조각이되얏더라선위니르러
 보고바야흐로대노하야좌우를호령하며로군을물니쳐장하에살니고침왈반국홀혀
 은도적놈아무슴뜻으로폴납을가져과인을속이노썰니내여버허라홀대로군이이길
 왈도셔로군을속임이오로군이대왕을괴망함이아니로소이다척발날이간왈만일로
 군을죽인죽이는항복하느길을막음이니그죄를샤하쇼셔선위침음왈그러홀진대과
 인이홀방략이잇스니좌현왕이능히서로도아공으로죄를속홀쇼나로군이응락홀대
 선위로군을장중으로만히불니왈이제명원슈의장략을보니힘으로싸호지못홀지
 라과인은드름애명런지우흐로래취잇서호성이근런하다하니과인이장춧초패왕의
 계교를호축하야놓흔도마에태공을안치고한왕을호령코저하노니엇더하노로군이

칭찬왈 츠비류묘하나 명래휘진남성에잇스니 엇지하리오 선위쇼왕장쉬되야 궤술
이업슨즉 못쓰는니 일기가래공을장속치못하리오로균의귀에다히고 ㄹ만히말하니
로균이대희왕대왕의신통하신계교과괴묘흔경륜은범인의맛철배아니로소이다하
고즉시래휘의복식과외장을돈드러즈기쳐첩과사로잡힌녀즈를장속하야흔곳에모
아멀니진중에세우고선위겨셔를써살에미여바로연소성에쏘니그겨셔에왈

寡人 鎮南城 陷沒 太后妃嬪 生擒 軍中
과인이임의진남성을함몰하고대후비번을싱금하야군중에니르릿스니명련즈는 明天子

항복흔즉즉시돌려보내려니와만일불연즉추회홀일이잇스리라 不然 追悔

던지보시고대경돈축하시며양원수를받바인건하시니원쉬주왈이논홍노의궤계로
소이다진남성은든든흔성디라엇지아긋치과하며진왕의장략과일지련의효용과윤
각로의충성으로량연을보호하야일분소루함이업슬지니이논선우의홍모비계라원
견대대군을동독하야선우의머리를취하야이붓그림을신설케하리이다상이눈물을
흘니시며탄왈짐이불효하야모지남북에병진이막하여쇼식이창망흔중홍설을드름
애간담이최절하느니라이제경언이십분유리하나엇지당녕이밋으리오하시고천이
원수와죄우를다리시고성문에놓히오르샤호진을브라보시니십만호병이렬홍긋치
결진흔중즈제복애중국녀지무수이둔취하야안젧스니그사로잡히여음을알너라기
중에의장복식이일광에빛최여완연흔궁중물석이라상이보시고육식이저상하시며

죄위무언함을보시고발을굴으시며연왕의손을잡으시고루쉬룡포를져즈샤왕짐은
임의종사에득죄홀몸이라엇지참아던하를가져모즈지정을밧고리오하시고성하지
밧을지축하시니양원쉬간왕신이비록불충불효하오나엇지일분의심된바로써금일
폐하의이연하신표성을손상케하리잇고넉적한래조는래공의위티함을목도하나요
동치아녜스니이를비록본바를배아니오나금일지스는쇼연흔간계라임의그간계를
알고의신간에이긋치동심하심은도로혀선우에게천심을죄임이라신이그복히책타
함이잇서선우의홍두역장을쇼연이아오니복원폐하는놀나지말으시고다만설쳐홀
방략을도모하쇼셔던지밋지아나하시고실성오열하샤왕한래조는비록영결흔인군
이나짐이리양스괴를보다가래공의일을당하야칭을덥고참아너지못흔바라부모를
모르논재엇지조상을알며조상을모르거든엇지종사를알니오하시고법가를저축하
여곳호친으로가랴하시니홀연일키쇼년장군이개연이출반주왕신은호친을봄에의
장복식이도시신비흔바라당녕이라후량년의평일시위아오니폐해이체지효로밋
지아나하신킨대수각말의를주신즉신이맛당히단괴로호친에가몬져진위를담지하
야만일량연이호친에게실진대신이죽기로써되시고올거시오만일선우의괴망흔인
즉선우의머리를버혀금일군신의망극홀욕을설치하리이다하거늘던지보시니이에
홍흔탈이라던져감루를먹이시며흔탈의손을잡으샤왕경의충성이지극하나불과일
기너저라엇지홀노위디에드러가리오흔탈이개연티왕신첩은듯즈오니넉글에하얏

스되유욕신사라하니인군이욕을당하죽그신해죽음은뉘엇호일이라신첩의가부연
 왕의관일지충은폐하의알으시느바라폐해이제성하지밍을결단하사법개호진으로
 향호신죽연왕의지극호충성으로반드시일분성존홀모음을두지아닐지니신첩이우
 호로군부의유욕심을보고아래로가부의스성이미관함을당하야엇지호번위디에
 드러감을스양호리잇고신첩은본디일기창기라스성이초개스오니복원폐하는법
 가를멈추시고수각군령을주쇼셔언필에괴적이렐렐하야추상스흔괴운이미우에오
 르며표연이몸을니러련조씩지비하고진중에도라오니양원쉬또호어이업서스치진
 상에와문왕랑이장춧엇지코져하느노흔탈이추연왕첩의련성은상공의알으시느바
 라군신부부의엇지다른말슴이잇스리오다만상공은대군을준비하야급함을보시거
 든서로구하쇼셔연왕이만류치못할줄알고가는손을잡아왕랑은수천정병을거느리
 고가라홍랑이쇼왕가를새미놓흔언덕에느리니그느래를더하지못할지라상공은근
 심치말으쇼셔하고쌍검을들고말게을나표연이호진으로가니라스선위명진에게
 셔를보내후호병을지휘하야중중첩첩이진을치고동정을관망하더니홀연일기쇼년
 장군이단괴로진전에니르러물을잡고소리왈나는명진제자이라황명을받조와량던
 안후를알고져왔스니선우에게고하라호대호병이창을들어막고져하거늘그장쉬쇼
 왕랑국이디진하야이스치단괴로왕랑하느스신을막는법이업느니셀니동하라선위
 초언을듯고즉시진전에나안져봄애그장쉬머리에성관을쓰고몸에전포를넌고신장

이오척에지나지못하고는허리와랑랑호성음이심분용밍치못하나별곳흔눈에정
 괴돌을하고빠혀난눈섭에잠간살괴를씨엇거늘선위로군을보며문왕이느엇더호장
 쉬료로군이스만히고왕이느전일정남부원슈홍흔탈이니명진중대일명장이오양원
 슈의평성총이하느가히라만일이장슈를업시호죽명던조의아금니를아슴이오양원
 슈의우익을폐함이라양원쉬비록정대하나흔탈이일시업스즉식불감미하고침불안
 셔하야성명을지렁치못하리이다선위대희하야력스십여명을미복하고모든호장이
 각각창검을잡아전후좌우로접접이호위호후짐짓문을열고홍흔탈을인도호애흔
 탈이일호접함이업서좌우를고면치아니하고양연이드러가래후계신곳을무른대선
 위쇼왕명래휘엇지파인군중에잇스리오파인이잠간명던조를희롱함이니장군은무
 단이위디에드러와도다홍랑이링쇼왕내또호선우를롱락함이라실로황명을받조와
 선우의머리를취하라왔스니엇지무단이오리오선위대노하며좌우를보며호번소리
 하니십여명미복홀력시일시에칼을들고내다르며전후좌우의창검이비발치듯드러
 오니홍랑이미쇼하고박은다시서서랑슈쌍검을바람스치들너동으로방비하며셔으
 로스리올애다만호줄기푸른안기칼뚫히러나고습습호찬괴운이사름을업습하느
 지라모든호장과십여명력시비록진력하야어드러이치나돌괴괴를씨르느듯일호상
 함이업고다만병괴만부러지거늘선위대노하야렐괴를풀어에위싸고일제이활로쏘
 라호대홍랑이웃고슈중쌍검을호번번득여잔곳이업더니아이오진중이요란하야창